



“청정실천 제주사회복지가족 모두가 위기극복 현장의 주역”

고승화 회장 특별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현장의 ‘코로나19’ 원천차단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치열하고 긴 싸움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 내색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 인내하고 있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은 분명 이 위기 극복의 주역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저는 18개 사회복지분야별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님들을 모시고 ‘코로나19’ 극복으로 청정복지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사회복지인들의 다짐을 도민사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선 최일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현장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은 도민사회의 우려를 덜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차례입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기울인 노력 이상의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했던 다짐을 실천하는데 한 치라도 소홀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사회복지가족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청정제주복지현장의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 승 화 회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대응에 우리가 나선다

사회복지시설마다 대응지침 엄격준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인력 부족 아쉬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도내 사회복지계가 자발적인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달 1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18개 사회복지직능단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해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외부인 출입제한, 수시 방역 활동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각 계로부터 기부 받은 마스크 2만여 개와 손세정제 1만여 개를 비롯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재난지원금 2억 9천만원을 지원받아 연무기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

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사진> 등 자체방역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사회복지현장에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개월여 만에 자원봉사자 등의 발길이 줄고 대체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으며, 방역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외부활동 불가로 스트레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 종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동시설의 생필품 사용량이 늘고, 간식구입비 등이 조기 소진되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거주시설 관계자는 “읍·면지역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이 어렵고 비용 감당도 힘들다.”면서 “어르신들이 가족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영상면회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쉼터 이용자의 의심 증상 발현시 자가 격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사회복지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면소개

- 종합.....2면
제주도의회 의정 소식
- 특집 4·5면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현장이모저모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법률상담터
- 협의회 소식 8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6기 전문위원 5개 분야 45명 위촉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제공 시범 사업

기간 2020. 04. 01 ~ 12. 31 대상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기준 기간 중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금액

혜택

협의회
단체회원 회비
면제 (2년)

협의회
교육 참가비
면제 (2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생산품 구매
상품권 (50만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또다른 '나눔'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에는 남다른 정성과 따뜻의 결실이 담겨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워킹그룹’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사진>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호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자 이번 워킹그룹을 추진하게 됐다.

워킹그룹에는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특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종자 조기발견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황국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지난달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안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및 무인항공기 지원 방안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안 제5조)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지원, △정보시스템 구

축, △실종자 위치 추적에 대한 장치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황국 의원은 “경찰과 협조해 지자체가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데 조례 발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중에는 실종자를 치매환자로 제한해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1개 지자체(경상남도)가 있으나, 실종위험군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자살

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주가 실종자 가정 없는 지자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은 매년 5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 실종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정신 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쉼터 등 98곳에 난방기 지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는 최근 ‘청소년쉼터의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98곳에 1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을 통해 각 시설들

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2월분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시설에서 사업비 부담으로 구입을 미뤘은 난방용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에서는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와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

프’(소장 김은영)가 지원 받았다.

쉼터 관계자는 “쉼터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 소요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성안심 3종 세트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도난,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성 1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 3종 세트는 실내용 동작감지센서(외출 시 외부인 집안 침입여부 휴대폰 앱으로 확인), 문열림센서(현관문 또는 창문 등 무단개폐 시 경보음 발생 및 사전에

설정한 지인에게 SOS문자 발송), 휴대용 호출벨(위험 발생 사용시 112 및 지인에게 비상문자와 위치정보 발송)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7일까지 여성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했으며, 신청 단체(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키로 했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 중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안전부문의 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올해를 시작으로 여성 안전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3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등뼈 247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 5,626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빵 118봉, ▲금산서당골=자투리고기 98kg, ▲김태연=생활용품 7개, ▲나준수=식료품 2,720개, ▲농업회사법인 서문 식품=두부 48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90kg, ▲텔문도=빵 178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82봉,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4,322개, ▲푸레쥬르 제주탐라점=빵 428봉, ▲롯데제과=롯데제과식품 4,910개, ▲모양=빵 2724봉, ▲미인빵=빵 61봉, ▲바바오름=빵 75봉, ▲비엔누아즈=빵 155봉, ▲소민떡방=떡 355개, ▲알파통상=식료품 943개, ▲약속다방=빵 103개, ▲이든이네=멸치 2.5kg 8박스, ▲제주농연=과자류 22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60개, ▲참새방앗간=떡 966개, ▲코시통뚬비=두부 159개, ▲파파무베이커리=빵 19개, ▲해맑은 떡방= 170개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190,000	1,13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400,000	4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75,000	461,820
푸 드 마 켓 후 원	3,015,000	3,137,310

발행안내

■발행인: 고승화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편집기자: 김승지
■편집위원실: (070)4726-8825

■편집인: 김성건
■창간일: 2007년 9월 1일
■주소: 제주시 청풍남8길 12-1
■편집디자인: 하늬출판인쇄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본격 추진

사업비 213억원 투입...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장애인회관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맞은편 도유지)에 총 사업비 21,338백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연면적 7,173.05㎡)로 (가칭)장애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가칭)장애인회관은 유형별 장애특성이 상이한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던 중,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의 장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인프라

를 구축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가칭)장애인회관은 2019년에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공사 발주 및 입찰을 거쳐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매장, 각종 회의실, 장애인단체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주차대수는 93대로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했다.

사람을 존중하는 복합 공간 조성, 사회와 소통하

는 나눔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됐으며,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친환경 건물로 건축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사기간 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칭)장애인회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와 전공과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했다. <사진>

사업은 직업상담과 평가를 통해 수립된 직업재활계획을 토대로 개인별 능력에 따라 사업체에 배치하고, 직무훈련, 지역사회 적응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작업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이 주 1회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내 사업체와 연계한 직무현장훈련이 주 4회 운영됐다.

이와함께 도내 대형마트 및 카페, 세탁업체, 육가공업체, 직업재활시설 등 사업체 8곳에서 장애학생 20명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직무훈련도 실시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훈련지원인은 “장애학생들은 아직 일을 해보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훈련을 받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힘이 되었고, 취업 전 현장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제주도는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적 및 정책적인 다양한 지원을 한다.

올해부터 보육체계개편으로 보육과정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하는 기본반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보육하는 연장반으로 보육과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자동 등·하

원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보육교직원이 일일이 아동의 출석여부를 종이출석부에 수기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담임교사지원비가 월 2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9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지원해 오고 있다. 인건비 정부미지원 시설에는 0~5세 반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 24시간 어린이집 새벽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월 45만원,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 장기근속 수당 월 5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주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업무에 지친 보육교직원들을 위해 정서·심리상담, 커피교실,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와 행정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상담·교육·자립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7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227명(검정고시 148명, 학교복귀 14

명, 학교 재적응 53명, 대학 진학 12명)이 학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월에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입시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 1:1 컨설팅을 통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1388 청소년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춘강 이동한 대표이사 명예회장 위촉

2023년 1월 12일까지 협의회 육성·발전 기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최근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이사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명예회장은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정기이사회 의결결과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12일까지 3년이다.

이번 위촉장 전달식은 2월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총

회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총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별도로 전달하게 됐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은 협의회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명예회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주사회복지협의회 3~5대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제



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제주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22회 호암상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자녀 가정 기준 2자녀로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앞으로 도내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는 10월

14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기준도 완화됐다. 기준 완화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 200만원이다. 양육수당은 둘째아이 이상 가구에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현장 이모저모



①



②



③

'청정제주' 지킴이 모두가 한마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청정복지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과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원천차단을 위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편집자 주〉



④



⑤

- ① 센터 내부 방역(보목지역아동센터) ②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과 18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의 결의문 발표
- ③ 복지관 이용자 대상 발열 체크(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④ 제주도 코로나 합동브리핑 수어통역 지원(제주수어통역센터)
- ⑤ 함덕농협 농가주부모임에서 기부 받은 수제마스크 착용(아가의 집)





⑥ 헌혈 수급을 위한 헌혈 수급 촉진 캠페인 동참(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⑦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긴급구호 생필품 키트 가정방문 전달(굿네이버스 제주지부)
⑧ 직원들이 종이행주 이용 마스크 제작(정혜재활원) ⑨ 다문화가정에 국가별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와 손소독제 전달(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⑩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교실 운영(은성종합사회복지관)
⑪ 가정방문 통해 회원들에게 마스크 전달(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⑫ 휴대용 살균스프레이 제작(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시론

동네인심

세상이 삭막하다지만 읍내는 아직 훈훈하다. 사람 살 만한 곳이다.

멋쩍은 얘기이나, 시내에서 읍내로 내려와 30년, 감귤을 돈 주고 사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과수원 하는 이웃집에서 컨테이너로 담아다 준다. 문우에게서도 간간이 건네 온다. 비상품이라 하나 그게 어떤 것인가. 거름하고 약치고 딸 때만 해도 알알이 손을 탄 것이다. 껌연쩍어 하면서도 받아먹게 된다. 주는 사람 마음이 있는 법인데, 주는 성의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게 서로 간의 정리다.

비단 감귤에 그치라. 바다를 끼고 있는 반농반어 마을이라 미역이며 톳을 종종 내미는 손들이 있다. 무며 브로콜리며 쪽파, 호박, 양배추, 양파에 이르기까지 가짓수도 여러 가지다. 특별한 음식이라며 빙떡을 싸고 오거나 메밀범벅을 양푼에 동산만큼 퍼 오기도 한다. 집에 와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하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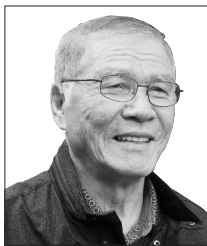
이웃 아주머니들이 올 때마다 무얼 들고 온다. 빈손으로 오기가 그렇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인심이 넉넉한 거야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후한 인정이 어디 있으랴 싶다.

몇 집 건너 사는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 무얼 잔뜩 담고 집에 왔다. “언니, 이시파?” 현관문부터 열어젖혀 가며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정겨울 수가 없다. 누가 보면 친자매라 할 것이다. 산에 갔다 오는 길이라 한다. 아침에 가 반나절을 꺾었다는 고사리다. 비닐봉지가득이다. 이 또한 손쉽게 건네지 못하는 초봄의 푸성귀이다. 고사리 꺾는 일은 들판이나 숲속을 휘저으며 다녀야 하니 그야말로 중노동이다. 한꺼번에 두 개를 꺾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를 꺾을 때마다 눈 두리번거리면서 매번 허리를 잔뜩 구부려야 한다. 더욱이 육십 대 중반의 아주머니다. 초로(初老)의 문턱에 들어선 몸에 애써 꺾은 고사리라 남에게 주기

가 쉽겠는가. 그런 걸 저렇게 한가득 가져오다니. 낮 안 서고맙다는 인사도 어려울 지경이다.

고사리는 돼지고기와 찰떡궁합이다. 입안에 퍼지는 향이 일미(逸味)다. 두 번은 볶아 먹겠다며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구름처럼 피어난다. 그것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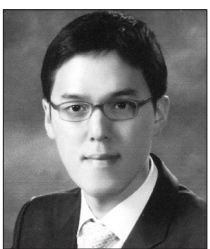
두 아들이 아파트를 장만할 테니 다시 시내로 들어오라지만 주춤거리게 되는 게 바로, 동네인심이다. 사람은 정을 주고 받으며 여여야 살맛이 난다. 올해로 30년, 이미 고향이 돼 버렸다. 동네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인심이 붙잡는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69

이메일 통한 해고통지 효력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근로자에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이다. 일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도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B회사에 다니던 A씨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가 해고를 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사실에 따라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A씨가 이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고가 결정되었다. A씨는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적인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이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과 관련 자료를 발송하

였고, 노무사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확인하였다.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해고통지는 정당한 효력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효한 해고통지이다. 우리 법원은 이 사안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

법에서 ‘서면’이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법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칼럼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의 존재감이 이처럼 커질 줄이야…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쯤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강하고 독한 모습으로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 달이 넘도록 막연한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 모두를 가두어 놓았고, 마스크를 사기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까지 낳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된 이후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플루(2009년)에 이어 세 번째 팬데믹(Pandemic,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으로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 함)이 선포되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을 2002년 사스와 2015년(최초 감염자 발생은 2012년) 메르스를 통해 경험했다.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한 시름 놓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처방이 현재로선 없다.

신종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감염 공포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취약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이 세 번째 경험인데, 다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일로 초래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응책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차원에서는 방역과 마스크 구비, 서비스 제공인력의 갑작스런 부재에 대한 대응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장애인과 초고령 노인 등 취약대상자의 경우 지원이나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차선택이 준비되지 않아 상당시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늘 그랬듯이 공공의 준비 미숙으로 초래된 혼란과 불편함에도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잘 이기고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든 힘은 지역사회에서 들려오는 선한 사람들의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언젠가 또 찾아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의 가족과 이웃을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마음의 거리’는 좀 더 가까이하는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⑧

행복나눔봉사회(문화·예술)

다문화 가족 인식개선 앞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문화 가족 회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회(회장 노임호)'는 2015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

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행복나눔봉사회는 현재 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결성됐다.

봉사회는 분기별 1~2회씩 노인시설을 방문해 노래, 춤, 난타 등의 공연봉사와 시설 내·외부 청소,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동문시장, 칠성로, 산지천 일대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제공 봉사, 바다정화 활동, 둘레길 환경정화 활동, 연말 김장김치 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임호 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진심어린 마음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는 봉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 변화 대응전략 모색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송문환)는 지난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내·일을 묻다'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 제주의 발달장애인 복

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 일을 묻고, 내일을 물으며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평생가치를 지향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진행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2018년

4월부터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중학교 1~3학년 20명 등 40명을 대상으로 영어·수학·NIE 등 교과학습과 난타·오키리나·탁구·당구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되며, 수시 모집하고 있다.

아라복지관, 좋은 이웃들 사업 추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일 좋은 이웃들 사업의 지원심사·자원연계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지원심사·자원연계 회의는 월1회 대면 회의와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위기 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 6인에 대한 지원



심사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정한 심의와 효율적인 자원연계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롯데장학재단 장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주시일시청소년원터(이동형)(소장 김은영)을 이용하는 청소년 2명이 롯데장학재단과 함께하는 'L-Bridge 장학지원 사업'에 선정돼 매월 20만원(총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은 봉사 장학지원을 통해 나눔과 소통, 관계와 공감 등 성장기 자신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복지·활동 기관 추천 고등학생이다.

제주시일시청소년원터(이동형)은 청소년들에게 보호·상담·학업·자립·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문의: 064-723-017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개 ⑧ 어울림터

맛과 영양 담은 전통장류 등 각광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2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어울림터'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 시설소개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춘강철학을 기본적 이념으로 설립됐다. 주로 전통장류제품과 제주 아



▲ 전통장류 제품

생화를 이용한 꽃차 제품, 양초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된장사업부

어울림터에서는 2006년 토속된장 사업을 시작으로 영천토속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등 전통장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토속된장과 간장은 100% 제주산 콩과 신안산 천일염을 원료로 메주를 발효시키고, 숨 쉬는 옹기항아리에서 2년 이상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 등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들여있다.

전통방식으로 옛기름을 달여 만든 고추장과 황토방에서 발효한



▲ 꽃차

청국장 또한 맛과 영양이 뛰어나 소비자들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어울림터는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인증 시설로 제주토속 장류의 맛을 보존하고 장류제조법을 계승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 꽃차사업부

어울림터 꽃차는 향기와 맛이 우수하고,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현대인들이 마시기 좋은 웰빙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

꽃차의 모든 제조과정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번갈아 가며 찌거나



▲ 양초

뒤음 과정을 거치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 양초사업부

100% paraffin wax 만을 사용해 700, 630, 550, 500 기도초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기획초 등을 주문 생산하고 있다.

어울림터에서 생산된 양초는 위해우려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이 거의 없으며, 타사 제품보다 연소시간이 긴 장점을 갖고 있어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도초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생산제품 문의: 732-0295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6기 전문위원 5개 분야 45명 위촉

자문위원 11명도 위촉 … 3년간 자문 역할 기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목적사업 추진 전문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자문위원회와 제6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자문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새로운 사업제안 및 목적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3년이다.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교육·조사연구·자원봉사·사회복지시설 등 5개 위원회에 45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협의회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와 관련법률을 검토하여 제·개정 의견을 제안함은 물론 복지현장의 각종 제도개선에 나서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아카데미’를 비롯한 특화교육사업의 계획수립과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이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사연구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

활동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자원봉사위원회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복지현장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자원발굴과 연계, 직능별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사회복지현장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 양광호 (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위원 강규진·박영식·양은심·양은정(이상 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고두승·윤두호(이상 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 고경운·고봉식·김수완(이상 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고성도(전)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훈(복지인연구소장)
위원 김재경(서귀포시노인복지관장), 김진우(제주양로원장), 김효선(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암재활원 사무국장), 김효주(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장), 문성용(제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신혜교(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안철민(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원장), 윤민(굿네이버스 제주지부장), 표성주(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고경희(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 김명수(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김보라(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팀장), 박상철(서부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송문환(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원장), 송미경(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장), 윤주영(서귀포작은예수의집 원장), 이승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사회복지시설위원회



위원장 이미정(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장)
위원 고민혁(도 노인복지관 부장), 김경화(예담재가노인복지센터장), 김미옥(제주시 희망원 사무국장), 김민범(무지개마을 사무국장), 박미란(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부은숙(도 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윤문희(제주몽생이그룹홈시설장), 임상배(탐라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조승희(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 실장)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고창우(아동청소년정신재활시설 우리아 시설장(휴모루심리상담센터 공동대표)), 김경옥(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장), 김홍철((재)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종철(지평경영컨설팅그룹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은설(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대표)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 고태언(도 자원봉사센터장)
위원 강상철(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옥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인철(도 지체장애인협회장), 김승호(제주동부모범운전자회 회장), 김장생(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지사협의회 전)회장, 양영철(바른봉사회 전)회장, 임영랑(제주노인복지원장), 한보규(제주은행 전)상무이사, 홍영선(사단법인 제주불교봉사회 전)회장